

중국의 10.5계획 계속으로 아시아 섬유산업은 중국의 독무대

중국은 경제개발 제9차 5개년 계획(9.5계획)을 좋은 성과로 끝내고, 2001년부터는 제10차 5개년 계획(10.5계획)을 추진하게 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을 계기로 2005년부터 섬유제품 수출쿼터제도의 철폐에 대비하여, 생산 및 수출규모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1년에도 세계의 섬유산업은 틀림없이 아시아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98년부터 국유기업 개혁방침에 따라 방직산업은 약 1,000만추에 이르는 노후 방기를 폐기하고, 116만명의 인원을 삭감하는 등으로 면방직의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섬유제품의 수출도 500억불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10.5계획에서는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과감하게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 방식에 따라 시장경제와 기업간의 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직공업국은 폐지하고, 업계내의 조정이나 업계 발전을 위한 서비스와 같은 기능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직공업 협회와 같은 업계단체로 이관하게 된다.

10.5계획이 끝나는 2005년의 목표는, 방직공업 생산액은 2000년에 비하여 37.5%증가, 섬유가공 총량은 2000년에 비하여 17%증가, 수출액은 2000년의 500억불에 비하여 30%증가인 650억불로 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섬유경기 전망을 보면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비교적 꾸준한 경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전년 경기를 밑돌 가능성이 있는데, 동아시아 섬유산업은 중국 독무대가 될 전망이다.